

Li Wei's in South Korea
——A Pupil's Diary Abroad

李

薇

李薇 著

一个小学生的留学日记

在

韩

国

李薇的日记

认识韩国

李

薇

在韩国

KOREA

李薇 著

一个小学生的留学日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新疆青少年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李薇在韩国:一个小学生的留学日记 / 李薇著.

乌鲁木齐:新疆青少年出版社, 2004.8

ISBN 7-5371-4916-X

I. 李... II. 李... III. 日记—作品集—中国—当代 IV. I267.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4)第 050744 号

李薇在韩国(Li Wei's in South Korea)

——一个小学生的留学日记(A Pupil's Diary Abroad)

李薇 著(Written by Li Wei)

责任编辑 武 红

装帧设计 谷 子

出版发行 新疆青少年出版社

(乌鲁木齐市胜利路 100 号 邮编: 830001 <http://www.qingshao.net>)

(李薇 E-mail: liweiliuhan@yahoo.com.cn)

印 刷 新疆金版印务有限公司

开 本 787X1092 1/24

印 张 8.25

字 数 80 千字

版 次 2004 年 8 月第 1 版

印 次 2004 年 8 月第 1 次印刷

印 数 1-5000 册

标准书号 ISBN 7-5371-4916-X

定 价 14.80 元

我们班的大姐姐

尹民英

韩国汉城市清凉小学一年级班主任

见到李薇以前，我一直怀着对即将教授外国学生的期待和不知能否沟通的双重心情。这种事情在我们国家的小学里并不多见，其他的老师也都很想知道这些情况。

第一次见到李薇的时候，她的聪明、善良、还有瞳子里不知来自何处的胆怯给了我深刻的印象。仅仅才自学过几天韩国语的李薇已经能清楚地说出“您好，我叫李薇”这句话。我们的学生用不太相信的目光看着这个即将在一起学习的个子高高的姐姐，再加上她来自中国，这在班里引起了不小的轰动。

李薇来到一年级是为了跟大家一起从头学习韩国语。很长一段时间里，李薇在这个满是蹦蹦跳跳的一年级小不点儿的教室里显得局促和迷茫。虽然每次她都很有礼貌地微笑着跟我打招呼，但是我看得出，来到一个全新环境后的陌生感、语言障碍造成的孤独感以及小同学们令人厌烦的恶作剧，让她感到很疲劳。

就像我一开始预料的那样，我似乎没有办法去帮助她，虽然我感到很心痛，但是在要照顾40名有时候连上厕所都很困难的一年级小孩子的处境下，我力不从心，这使我感到很遗憾。

但是随着时间越来越久，李薇自己忍受并且克服了这些困难。虽然年龄上的差异很大，语言也有障碍，但是李薇渐渐有了可以互相拉着手一起玩的朋友，男孩子们也不敢再在个子高大的李薇姐姐面前随便恶作剧了。

就像她留给别人的第一印象那样，李薇非常聪明而且很努力，在学习上没有任何问题。刚来到韩国就掌握了韩国语的基本文字，阅读和数学也非常好。一个12岁的女孩子，来到一个

完全陌生的环境,从理解其他孩子的话,直到她用外国语表达自己内心想法时因有点不好意思,中间似乎经历了一个相当长的过程。

为了学习基础韩国语来到一年级的李薇,第二年直接升入六年级的时候发生了很大的变化。这一切都源于她在父母鼓励下不断地给自己加油,以及她自己不懈的努力。

不久她就要回国了,对于李薇来说,在韩国的经历是任何人所不具有的,这将成为她最有价值的财富。我与李薇的相遇也将成为任何人都会拥有美好回忆。

이미를 추억하며

이미를 만나기 전, 나는 외국의 아이를 가르치게 된다는 기대감과 내가 아이와 잘 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함께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다.

이미를 처음 만났던 날, 똑똑하고 착해보이면서도 어딘지 겁이 많아 보이는 커다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다. 며칠만에 한국어 연습을 했는지 “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라고 또박또박 인사도 하였다. 우리반 아이들은 키 큰 언니가 같은 반이 된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고 게다가 중국인이라는 말에 모두들 들떠했다.

한동안, 철부지 꼬마들이 뛰어다니는 1학년 교실에서 이미는 안타까울정도로 어리둥절했었다. 나에게는 항상 예의바르게 인사하고 미소를 보냈지만, 전에 있던 환경과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의 낯설음,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서의 외로움, 가끔씩 짝꿍게 장난치는 아이들에 의한 상처로 집에 갈 시간에는 눈초가 다 되어서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돌아가곤 했다.

나는 처음 망설였던 대로 내가 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려 했지만,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도 가끔 힘들 때가 있는 1학년 4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처지라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해 많이 안타까워했었다.

그러나 이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잘 견디고 너무나 잘 이겨나갔다. 나이차이도 나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손잡고 다니며 친구를 만들었고 남자아이들의 짝꿍은 장난도 멍치가 큰 이미가 제압(?)하는 씩씩한 모습도 보였다.

이미는 첫인상대로 매우 총명했고 집에서든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습의 진

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글의 기본글자인 ‘가나다라’는 금방 떼었고 읽기도 매우 잘했으며 수학은 매우 잘했다. 단지 13살짜리 여자아이로서 낮은 환경에서 다른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말하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

한글도 배울 겸 1학년으로 들어왔던 이미가 다음해에 6학년으로 진학할 때에는 너무나 많이 변화된 모습이였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속에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때문일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가졌던 값진 경험들이 누구도 갖지 않은 이미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이미를 만났던 일 또한 누구도 갖지 않은 소중한 보물이고 추억이듯이...

윤 민 영

윤민영

我的外国学生

005 <<

朴恩太

韩国汉城市清凉小学六年级班主任

我现在还能清楚地记得李薇那白皙乖巧的脸。不仅因为她是我三十多年教师生涯中惟一的外国学生，而且还因为她拥有在逆境中不断克服困难的坚强意志。希望她能够新的环境里继续努力，维系和韩国之间的美好缘分，也祝愿她以后能够成为一名出色的外交家。

我是在 2002 年 3 月的开学典礼上第一次见到李薇的。那时，学校安排我做汉城市清凉小学六年级三班的班主任。开学的那天，我和学生们正在举行开学典礼时，学校教务处通知我，要给我的班里安排一名外国学生。过了一会儿，一名学生来到了六年级三班，她脸蛋儿又白又圆，眉目清秀而可爱，这就是李薇。

可爱、乖巧，是李薇留给我的第一印象。

从学期初就布置下来的自学任务给了李薇很大压力。每天实行的自学和日记检查，很多学生都做不好，但是李薇却没有任何一次不合格。我也因此而知道她是一名十分努力的留学生。

大约是 3 月末的时候，班级的秩序已经稳定下来了。我从教务主任李镇相老师那里知道了一些关于李薇的情况。去年她在我们学校一年级里进行了一学期的韩国语集中学习，然后在短短的 6 个月里直接升入六年级。她的父亲正在庆熙大学作博士研究生，并且要我对韩国语还不是很熟练的李薇多照顾一些。

回到教室看着李薇我感到很抱歉，和我国六年级学生受到同样管理和严格要求的李薇一定感到十分辛苦吧？但是她却做得非常好，课堂态度十分端正，自习也完成得非常好。除了发

言不能做得非常熟练外,没有任何一项是落在韩国学生后面的。她是一个理解能力很强、考虑问题很深刻、思维角度非常宽阔很有才华的学生。

让我吃惊的是她的生活日记写得非常好。一开始我以为她是在我的要求下才不得不写的,后来我才发现李薇的日记写得非常认真。不仅字写得工整,而且还详细地记载了她对韩国的理解和认识,那里面包含了在国外生活的困难、学校生活的辛苦、和朋友们的谈话、韩国和中国社会的差异等,很多小学生不会去思考的问题,体现了她的智慧和真挚的感情。

更让我吃惊的是她会把用韩文写成的日记再用中文写一次,或许是把用中文写的再写成韩文。其他学生只写一次就感到厌烦的日记,李薇每天都会写两次。这是她学会韩国文字以后一直坚持的习惯,培养了她远超过一般人的毅力。李薇这种诚实的学习态度深深地打动了我,同时也让班里其他同学产生了嫉妒。有一次她来找我,对我诉说了她的苦恼,这使我非常生气,我狠狠地责备了班里的学生们:

“你们有哪一点是比李薇强的?就连你们一直很自负的韩国语发言现在也被李薇超过了。你们一直在自己的国家里舒服地成长,而李薇这么小就来到国外,在生活中遇到那么多困难,你们不仅不去帮助她,反而去妒嫉她,这就是你们应该做的事情吗?以后要多帮助她,善意的竞争才是你们应该做的。”

之后我知道同学们和她相处很好,我真希望不要因为那件事让她那幼小的心灵受到伤害。

我现在虽然已经离开了汉城市清凉小学来到别的学校工作,但是李薇那乖巧的模样和坚强、端正的生活态度我永远都不会忘记。

잊지 못할 이미

007 <<

나는 지금도 이 미의 해맑고 순수한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나의 30년 이상의 교직 경력 중 단 하나의 외국인 제자이며 자신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솔한 인간성을 가졌으며, 억척스럽게 노력하고, 한국과의 인연을 발전시켜 훌륭한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이 미의 행운을 빈다.

내가 이 미를 처음 만나 것은 2002년 3월 개학식 날이었다. 서울 청량초등학교 6학년 3반 담임을 배정 받아 교실에서 개학식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 반에게 외국인학생 한 명 배정해 준다고 하였다. 잠시 후 어떤 학생이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둥글고 희며 눈매가 고운 귀여운 학생 그가 바로 이 미였다.

‘참 귀엽고 착하게 생겼구나’ 하는 것이 나의 첫 인상이었다.

학기초부터 강요하는 자율학습 때문에 이 미는 무척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매일 실시하는 자율학습과 일기검사에 많은 학생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는 언제나 합격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유학생이려니 생각하였다.

학급의 질서가 잡혀가는 3월 말쯤 당시 교감이셨던 이정삼 선생님에게서 이 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작년 우리 학교에 왔고 1학기 동안 1학년에서 한글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6개월 만에 6학년에 곧바로 배정되었으며 아버지는 경희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였다. 아직도 우리말을 서툴게 하므로 담임이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까지 해주셨다.

교실에 돌아와 이 미를 보고 있으려니 괜스레 미안했다. 우리나라 6학년 학생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엄하게 대했으니 이 미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런데도 이 미는 정말 적응을 잘해 주었다. 수업태도도 모범적이었고 자율학습도 철저히 잘하고 있었

다. 자연스러운 발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생들에게 뒤지는 일이 없었다. 이해력도 좋고 재치가 있으며 생각의 폭도 깊고 넓었다.

놀라운 것은 생활일기를 아주 잘 쓴다는 점이었다. 처음엔 선생님이 일기 쓰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미는 일기를 아주 성실하게 썼다.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쓰고 우리나라에 와서 알게 된 것을 솔직하게 썼다. 그 속에는 자신의 생각과 지해가 들어있고 외국생활의 어려움, 학교생활의 애로사항, 친구들과의 이야기, 한국과 중국사회와 차이 등 초등학생이 생각할 수 없는 진솔한 사연과 진지한 인간적 사고들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로 쓴 일기를 중국어로 다시 쓰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중국어로 쓴 일기를 한글로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학생들은 한 번 쓰기도 싫어하는 일기를 이 미는 매일 두 번씩 썼던 것이다. 한글을 배우고 난 후부터 계속 하는 습관이라고 하니 이 미의 집중력과 성실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이 미의 성실한 학습태도는 내 맘에 속 들었고 반 아이들은 이 미에게 약간의 질투를 하였던 것 같다. 언젠가 이 미가 속상해하며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무척 화가 났었다. 나는 우리 반 여학생들을 크게 꾸짖었다.

"너희들이 이 미보다 잘 하는 게 무엇이니? 너희들이 자부하는 한글 발표마저도 금방 뒤떨어지게 생겼구나. 너희들은 부모님 사랑 밑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 않니? 그러나 이 미는 어려서 외국에 나와 살면서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텐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미워해서 되겠니? 앞으로 도와주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 후 급우들과의 사이가 원만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때의 일로 이 미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나는 서울청량초등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 미의 순수한 모습과 성실한 생활태도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한국 서울청량초등학교 교사

김 응 태

김응태

李薇 的 日记

2001年7月24日

星期一

星期二

星期三

星期四

星期五

星期六

星期日

2003年11月15日

目 录

序一 (韩)尹民英

序二 (韩)朴恩太

李薇的日记 001

附录:认识韩国 167

2001年7月24日 星期二



001 <<

我要去韩国啦!

2000年8月底,我的爸爸被中国政府选拔为公派博士研究生,来到了韩国首都——汉城市攻读国际贸易专业博士学位四年。爸爸来韩国后不到十一个月我和妈妈便以陪读的身份也来到了这座美丽的现代化大都市。

听到爸爸让我和妈妈也来韩国的消息后,我高兴极了。终于可以和爸爸见面啦!放暑假后,我和妈妈准备好行李,于7月21日登上开往山东烟台的火车。我们决定坐轮船来韩国,因为坐轮船可以观赏大海的景色。7月22日中午我们到了烟台,23日下午四点左右,我和妈妈踏上了山东烟台到韩国仁川的国际轮船。

上船前,可真花费了很长时间。海关要一个一个检查护照及相关证件,非常仔细。听妈妈说,每个人在出境前都是这么复杂,海关要非常严格地审查才行呢!终于检查完了,我和妈妈才坐上专门开往港口的大巴车,到轮船停靠的真正的港口那边去。

停靠在岸边的轮船看上去可真大啊!我和妈妈拎着大小行李上了船,经过很长的过道后,才进入船舱内。在船舱总服务台换了钥匙,上到二层才找到我们的头等舱房间。哇!房间里的设施还不错,两张床,两张床之间还有一张茶几,电视机、衣柜、卫生间及浴室等都有,使用很方便。我们的房间正对着船头。休息了片刻,轮船开始缓缓启动了,我便迫不及待地拉上妈妈去参观这艘国际轮船。我带着好奇心,把船的上上下下参观了一遍。船上还有娱乐厅、餐厅、小卖店等设施;有中国旅客,也有韩国旅客。要不开口说话,很难分辨出谁是中国人,谁是韩国人。参观完船舱内,我和妈妈又来到船舱外,依靠在船舷上,观赏着轮船行驶时大海的美景。迎着傍晚的海风,感受着大海的宽阔,相比之下,这艘巨轮在大海上显得太渺小了。

躺在床上,我兴奋得久久不能入睡。

第二天早上,我早早就醒了。打开电视机想看看电视节目,咦?昨天晚上电视节目还是中国的,睡了一晚,就变成韩国的了。妈妈说:“现在轮船已经行驶到韩国的海域里了,所以接收的电视节目自然就是韩国的了。”第一次真正地听到了韩国语,感觉还挺好听的。这时,房间的喇叭里传出服务员的声音,通知旅客们作好准备,行船马上就要停靠到韩国仁川港口了。我高兴极了,赶快帮妈妈整理好行李准备下船。

下船也用了许多时间。下船后又乘坐一辆大巴车去海关检查处。入境海关检查得更仔细。终于轮到 we 被检查了。那位韩国海关官员用流利的汉语向我们问了几个问题,然后在我们的护照上盖了章,我们就算入境了。从此我就踏上韩国国土了。

来到等候大厅等待爸爸的时候,我急切地想看看韩国仁川市的市容。噢!仁川市不是那种一望无际的平原,而是属于一种丘陵地带。一座座式样别致的房屋错落有致地建在平地 and 半坡上。城市也绿化得很好,看起来很温馨。街道两旁挨挨挤挤地挂着广告牌,一种很强的经济繁荣的气息从中透露出来。眼看着窗外景象,我在想,这还不是韩国的大都市,那么,我爸爸留学所在大学座落的大城市——首都汉城市和其它地方又是怎样一番繁华景象呢?正在我遐想的时候,爸爸和一位叔叔来了。爸爸给我们介绍说,这位叔叔是他的一位韩国朋友,家住汉城市。听说我们今天来韩国,特意开车来接我们来了。我们真是太感激了。在我和妈妈与这位叔叔相互打招呼的时候,我发现这位韩国叔叔对我们一边儿打招呼一边儿还行了一个近似 90 度的鞠躬礼。当时我想这就是韩国人的问候方式吧。这位叔叔是我认识的第一位韩国人。

经过大约 2 个小时的行程,终于到了我们在汉城的家。

从此,我——一个小学生的留学生涯便开始了。

2001年7月24日

星期二



003 <<

别具一格的住处

到了我们家住的大门前,看到我们将要住的房子像一座小别墅似的,我和妈妈同时感到很惊讶,住这么高级的房子呀!妈妈问爸爸房费一定很贵吧,爸爸说比国内贵多了,但在韩国出租的房屋大部分都是这样的,租住这样的房子每月的租费比租住阿帕特要便宜些。

说话间,爸爸打开房门,在门口处有一块约一平方米大的、低于屋子地面约十公分的水泥地板,这时爸爸告诉我们就在这儿脱了鞋后不用换脱鞋,穿着袜子直接进屋就可以了。我和妈妈都感到很新奇。进了屋子后一看,更令我和妈妈吃惊,呀!怎么什么家具也没有?擦得十分干净、光亮的地板上没有床,没有凳子,没有桌子,爸爸看出了我和妈妈的疑惑,解释说,在韩国出租的房屋都是这样的情况,因为韩国人的传统习惯是进屋后直接坐在地板上,也睡在地板上。吃饭时坐在地板上用的是低矮的桌子,学习、写东西时也都是爬在低桌上进行的。但是,部分家庭现在已改变了这种生活习惯,也有了床、沙发、高饭桌和写字桌。听了爸爸的话,我们对韩国人的生活习惯有了初步的了解。但刚开始按着韩国的传统习惯生活,对于我们外国人来说的确太不习惯了。

晚上睡在地板上感觉是别样的,多么新奇啊!从今以后,在我的生活中不知会有多少新奇的事情出现呢。





李薇与在韩国任教的美国教授夫妇合影



李薇与中国驻韩国特命全权大使李滨先生



上中学的李薇

李薇的初中数学作业

$$\begin{aligned} 1) 5613 &= 5 \times 10^3 + 6 \times 10^2 + 1 \times 10^1 + 3 \times 1 \\ 2) 2002 &= 2 \times 10^3 + 0 \times 10^2 + 0 \times 10^1 + 2 \times 1 \\ 3) 4 \times 10^3 + 1 \times 10^2 + 2 \times 1 &= 412 \\ 4) 3 \times 10^3 + 4 \times 10^2 + 1 \times 10^1 + 6 \times 1 &= 3416 \\ \text{문제 2) } 5289 & \\ \Rightarrow 1000: 5 \text{ 개} \cdot 100: 2 \text{ 개} \cdot 10: 8 \text{ 개} \\ 2) \text{ 방법} & \\ \text{㉠ 이진법} &= \text{왼쪽으로 자리가 하나씩 올라갈 때 2씩씩 증가} \\ \Rightarrow \text{사용한 수 (3개)} &: 0, 1 \\ \text{㉡ 이진법의 전개식} &: 2^0 \times 1 + 2^1 \times 0 + 2^2 \times 1 \\ \text{Ex) } 11(10) &= 1 \times 8 + 1 \times 4 + 0 \times 2 + 1 \times 1 \\ &= 1 \times 2^3 + 1 \times 2^2 + 0 \times 2^1 + 1 \times 2^0 \\ &= 1 \times 2^3 + 1 \times 2^2 + 0 \times 2^1 + 1 \times 2^0 \\ &= 1001(2) \Rightarrow \text{십진법으로 바꾸면?} \end{aligned}$$

P43~
 문제 1) 이진법의 전개식
 ㉠ $11(10) =$
 ㉡ $1100(2) =$
 ㉢ $1 \times 2^3 + 1 \times 2^2 + 0 \times 2^1 + 0 \times 2^0 =$
 ㉣ $1 \times 2^3 + 1 \times 2^2 + 0 \times 2^1 + 0 \times 2^0 =$
 ㉤ $1001(2) \Rightarrow \text{십진법으로 바꾸면?}$